

# 오판에서 속죄로 돌아서라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3)

☞ 추태화

연재 순서

- 1회: I. 파장의 중심, 한국 교회
  - II. 비판의 대상이 된 독일 교회
- 2회: III. 역사 왜곡에 앞장 서다
  - IV. 분단을 저지할 수 있었다
- 3회: V. 통일로 속죄하다,
  - VI.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



## 통일로 속죄하다

분단 뒤 동·서독 교회는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갔다. 동독 교회는 사회주의 정권의 전술적이고 지속적인 탄압으로 서서히 쇠퇴해져 갔고, 서독 교회 교인들은 교회로부터 서서히 탈퇴해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세워가셨다. 서독 교회는 동독 교회를 위해 여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동독에서 자유언론 행위와 체제 비판으로 수감된 정치범들을 보석금을 내고 서독으로 데려오기도 하였다.

동독 교회는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초에 동독 각지의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회가 열렸다. 초기에 기도회는 월요일 업무가 끝난 후 저녁에 교회에서 가졌다. 시작은 기존 교인들 중심으로 미약했다. 그러다 점차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 천명이 모여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자유에 대한 정치적 열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이 지속적인 시민 기도회의 중심이 되어있었다. 라이프치히(Leipzig)에 소재한 니콜라이(Nikolai) 교회가 월요기도회 운동의 중심이 되어갔다. 기도회는 설교 뿐 아니라 전국에 수감된 교인들의 명단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전세계에서 탄압받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였다. (통일 후 현재 기도회는 곳곳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있다).

1989년, 라이프치히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린 월요기도회 후 주요 간선도로를 걸으며 평화시위를 했다. 무장경찰이 발포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느 고위관

리도 형제요 자매인 그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시민들은 평화기도회의 원래 목적에 맞게 무장하지 않았고, 경찰서 및 관공서를 약탈, 파괴하지 않았다. 수 십만 명이 폭도로 변했다면 무장을 서슴치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혀있던 동료 정치범들을 석방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시작한 행동만큼 평화적으로 시위하였다. 동독 사회주의 정권은 평화 시위로 의사를 표명하는 교회와 시민들에게 백기를 들게 되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동·서독은 통일 과업을 이룩할 수 있었다. 동독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 그 중심에 바로 동독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잊어서 안될 것이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동독 교회와 교인들을 지원한 서독 교회를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 한국 교회가 가야할 길

역사는 속이지 않는다. 역사는 거울보다도 더 정확하게 상황을 비추주고 있으며 교회도 다르지 않았다. 역사는 교회를 왜곡하지 않으며 역사를 통해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동안 살펴본 근대, 현대사 속의 독일 교회는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가 독일 교회를 왜곡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가 독일 교회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한 것일까? 우리는 거꾸로 말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역사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오판(誤判)이라 말한다. 독일 교회는 한동안 오판의 늪에, 오판의 죄악에, 오판의 범죄에 떨어져 있었다.

독일 교회는 1850년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의 발흥에 대해 오판으로 일관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 굳어져온 관성적 습관에 의해 스스로 자연스럽게

좌측 사진설명: 월요촛불기도회의 중심지로 떠오른 라이프치히 시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사진 좌, 독일 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가 사회주의 붕괴와 자유를 환호하는 동서독 시민들, “독일 조국은 하나다”라는 플래카드로 통일을 염원하고  
 사진 우, 동서독을 갈리놓았던 철조망을 자르는 시민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실현되기 위하여 한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

(?) 행동했다고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치명적인 오판으로 판정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이다. 독일 교회는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구호 아래서 극우 민족주의의 집결지가 되고, 나치와 히틀러를 옹호하게 되고, 결국 분단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한다. 그 과정에서 복음적 신앙인들의 저항, 희생, 순교는 교회의 본질을 온 몸으로 증명한 사례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분단의 비극을 맞게 된다. 교회도 동서독 교회로 분리되었다. 하지만 서독 교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독 교회를 지원했고, 동독 교회는 사회주의의 탄압 속에서도 굳건히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믿음과 기도, 사랑과 평화였다. 월요기도회를 실천해 가던 10년 즈음에 사회주의 정권은 복음과 교회로부터 샘솟은 능력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이로서 독일 통일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 과정은 옛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복음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광대한지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

역사 속에 비친 독일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한국 교회는 어느덧 사회를 걱정하던 위치에서, 사회의 염려를 받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 역사 속에 비친 현재의 한국 교회, 독일 교회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시급한 몇 가지만 거론하기로 한다.

먼저 철저하게 성경과 복음으로 회귀해야 한다. 교회의 권위를 세속적으로 누리려는 자세, 그리하여 교회가 본질을 잃고 휘청거리는 모습에서 하루 빨리 돌아와야 한다. 한국 교회 안에 스며있는 샤머니즘, 허례허식, 천민 자본주의, 권위주의, 경직된 위계질서 등등 말씀에서 벗어나는 비복음적인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여기에는 교역자, 평신도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세속 권세와 손잡으려하지 말아야 한다. 나





엄원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적 권세를 탐하고,  
원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원천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교회는 교회가 가야할 길이 있다.

치에 동조했던 기독교인들은 정권의 힘을 빌리면 전도와 선교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성경은 증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보다 이방의 제왕들과 협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었는가를. 교회가 사회적 권세를 탐하고, 원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원천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교회는 교회가 가야할 길이 있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빌미로 복음을 훼손, 왜곡해서 안된다. 1차 세계대전과 나치 시대에 우왕좌왕했던 독일 교인들은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

나님 보다 (눈에 보이는) 국가와 민족에 우선 봉사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에 열광했다. 결국 극우 민족주의가 사회적으로 득세하므로 나치를 옹호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교회는 민족주의의 시녀가 아니다. 교회는 민족주의에 길을 제시해야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에게 엄숙히 질문한다. 한국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역사를 되돌아 보라. 독일 교회의 사례를 통해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비전을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추태화** 독어독문학 박사이며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학과장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문화분과 분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의 미로에서 길을 찾다』, 『태초에 문화가 있었느니라』,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등이 있다.